

항공기도 바이오연료 시대 성큼

버진 애틀랜틱, 보잉787 15대 구입키로 ... 바이오연료 사용 조건

영국의 버진 애틀랜틱 항공사를 소유한 리처드 브랜슨(57)이 최근 미국 보잉의 787 여객기 15대를 구입키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버진 애틀랜틱 항공사의 에어버스 항공기 일부를 교체하면서 다시 에어버스 기종을 선택하는 대신 보잉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보잉은 브랜슨의 주문 덕택에 28억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대가로 <친환경> 항공기를 납품하겠다고 약속했다.

석유 대신 식물성 바이오연료를 항공유로 사용함으로써 비용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잉은 2008년 말까지 보잉 747기 여객기에 친환경 바이오연료를 주입해 시험운행할 계획이다.

보잉 항공기의 엔진 설계기업인 General Electric Engineers는 이미 옥수수와 해조류, 스위치그래스, 심지어 신문지 등 여러 가지 바이오연료 소재를 항공유 대체연료로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슨은 “바이오 연료를 사용해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행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하고, 항공기에 석유 대신 바이오연료를 사용함으로써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항공유 사용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항공유 사용량은 25년간 2배 이상 증가해 하루 7000만갤런(2억6500만리터)을 웃돌고 있으며 항공유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 대신 바이오연료를 항공기에 사용하는 데 가장 큰 과제는 고도가 높은 공중에서도 열지 않는 연료를 개발하는 것으로, ABC의 항공 애널리스트 존 낸스는 제트 여객기를 날 수 있게 할 정도로 충분한 추진력을 가진 바이오연료를 개발할 수 있을 지는 확실치 않다고 강조했다.

브랜슨은 2007년 2월 이산화탄소 배출을 대폭 감축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 포상금으로 2500만달러를 주겠다고 제의하는 등 지구 온난화 저지 캠페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07>